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말씀: 욥23:1-17

욥기를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기독교의 구원, 성장은 올바른 좌표 설정에 달림

1.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 2. 사람이 이해/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성도에게도 닥친다. 3. 그러나 의인에게는 좋은 끝이 있다. 롬8:28; 15:4

욥이 세 친구들과 세 차례 논쟁, 두 번째 논쟁 시리즈, 엘리바스와 빌닷, 동일한 말로 공격
사람 가운데는 자기 호소를 들어줄 자가 없으므로 욥이 죽기를 바라면서도 부활 신앙 고백(19:25-27)
부활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의 목적은 무엇인가?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발의 공격(20)

2차 논쟁, 마지막 주자로 소발이 나서서 욥을 공격하지만 다른 것이 없다. 1. 하나님은 공의롭다. 2. 죄인 심판, 의인 축복, 3. 욥의 고난,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4.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 축복
소발의 키포인트(20:5): 사악한 자는 결국 망한다.

1. 그들의 삶은 짧다(4-11): 풍(7), 꿈(8), 자식들도 종살이, 다 망한다(10), 결국 죽는다(11)
2. 그의 모든 일이 악한 것이 된다(12, 16). 재물도 없어진다(15)
3. 풍요를 알지 못한다(17), 이유(19), 4. 갑자기 화를 당한다(22-23)
5. 옆친데 덤친다(24-25), 6. 결국 망한다(28-29).

욥의 반박(21)

- 1-6에서 다시 한 번 위로자로서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한다(5). 조용히 입을 닫고 위로하라.
1. 소발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세상을 보라. 악한 자들이 잘 된다(7-16). 7-8절 우리 주변에도 이들의 문제: 하나님을 뺀다(14-15). 혼자 힘으로 잘되는 줄 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16).
생각: 우리도 혹시 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하지는 않는가?
주눅이 들어서 혹시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사람의 번영은 꽃처럼 지나간다. 목련과 벚꽃을 보라.
 2. 잘되는 것 같지만 그들도 결국 어려움을 당한다(17, 18).
 3. 결국 사악한 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진다(22-34). 22절, 26절, 32-33절

엘리바스의 공격(22)

3차 논쟁 시작

1. 욥은 죄인이다(1-11). 5-7
2. 욥은 자기 죄를 감춘다(12-20). 13
3. 욥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21-30). 21-23, 그러면 복을 받는다(24-25, 28), 번영 신학의 대가 이쯤 되면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 종교인의 확신 혹은 맹신
혹시 우리는 이들과 같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이들이 틀렸다고 하신다(욥42:8).
변화가 생겨야 한다. 나는 내 틀에서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가?

욥의 대답(23)

욥은 친구들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내 고통이 심하다(2). 어디에 가서 그분을 만날까?(3), 만나면 그분께 직접 호소하리라(4-5). 욥의 확신(6).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사정을 아신다. 분명히 나는 구출될 수 있다(7).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8-9).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욥은 직접 만나고 싶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답답한 심정,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한다. 무고하게 욥은 지금 용광로 속에 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10).

계획의 목적: 그를 정결하게 하는 것, 위대하게 하는 것
용광로는 정제하는 도구, 순결하게 하는 도구(사48:10)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신4:20), 단련하는 도구(시66:10)
초대 교회 성도들(벧전1:6-7; 4:12), 중세 암흑시대 성경 신자들
우리는 어떤가? 날이 갈수록 좌경화

계획을 가지고 용광로에 넣으신 뒤 온도를 재시고 시간을 재신다(고전10:13).

우리는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확신이 있다(10). 정금같이 정제되어 나온다.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의 용의 상태(11-12). 죄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11, 12초).
엘리바스의 주장(21;22). 말씀을 받으라. 용은 이미 하고 있다.

용은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들을 중히 여겼다(12). 마4:4

예레미야의 경험(렘15:15-21). 16, 그럼에도 고통이 지속된다(18). 주님의 약속(21)
사람은 누구나 용광로를 경험한다. 예외가 없다. 여기에 들어가서 얻는 결과는 두 가지

1. 찌꺼기로 타 버린다. 2. 보물로 정제된다.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님의 뜻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뜻(13-14), 사55:8-11

하나님의 주권 통치,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 많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매우 많다(14).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참고 나간다. 정제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

이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로 편다(15-16). 나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의 두려움
그 이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이다(17).

내가 가는 길(10)

1. 당신이 가는 길을 아는가? 삶의 목표, 종착지

연세 드신 분들, 꿈 많은 젊은이들

2.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아신다. 비난과 비방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후6:3-10).

3. 당신은 당신의 길에 있는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가면 정제되어 나음을 믿고 있는가?

5. 인생의 목표: 구원받은 뒤 자라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

그런데 이것은 탄탄대호가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 뒤에 영광이 있다.

6.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12)

나의 성경 번역 이야기

형제님

지난 3년 동안 할 수 있는 한 매일 평균 7시간을 작업했어요. 연구년 9개월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학기는 주에 3시간만 강의하고 나머지 전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목표, 정확하고 읽기 좋은 성경을 만들려고!!

이런 집념이 없으면 안 되지요. 성경이기에.

누가 묻거든 그리 답해 주세요. 이런 집념과 노력을 통해 마제스티 판이 나온다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도 잘 짓고 있어요. 8월말이면 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하던 일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내 인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가 다 들어갔으므로.

건강만 유지된다면 약속한 대로 2020년에 출간할 것입니다.

성우의 녹음과 함께.

끝으로, 미진한 것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샬롬